

# 진도군, 투자유치 최우수상 등 2개 분야 수상

###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노력상...김희수 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다양한 정책 적극 추진"



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2 전남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등 2개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1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투자유치 분야는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실현 실적, 기업 애로사항 수렴·해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6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투자금액은 3,255억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480명으로 예상된다.

노력상을 수상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를 비롯 일자리창출과 지바물가 안정관리 등을 적극 추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전남 일자리 한마당 행사는 지난 1년간 일자리와 관련한 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등 3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진도=조상용 기자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완도군, 집중 계도 기간 운영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 가운데 완도군이 제도 정착을 위해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없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 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업소 방문 및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증가로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소뿐만 아니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다산청렴연수원,

### 청렴교육 메카 입지 다져

강진다산청렴연수원이 올해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 등 5개 과정, 총 66회 교육으로 2,685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며 5억 7천만 원의 교육비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교육 수요생이 41% 늘었으며 교육비 수입이 33% 증가한 수치다

교육과정별로 ▲다산 공직관 청렴교육 12회, 564명,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 10회, 485명, ▲연령별 특화 청렴교육 6회, 323명, ▲다산체협 청렴교육 35회, 1,200명, ▲가족 목민관 캠프 3회, 123명이 강진을 다녀갔다.

특히 '5060 연령별 특화과정'은 5대 1, '가족 목민관 캠프'는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더 많은 교육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강진이 대표적인 청렴교육의 메카임을 입증했다.

강진다산청렴연수원은 전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 기수별 2박 3일의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를 비롯한 대표 관광지를 답사하며 강진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새로운 강의, 체험, 관광, 맛집 등을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대상별, 계절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해 교육생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재 방문율이 높다.

강진=김영일 기자

## 강진군, 겨울철 모기 유충구제 방역활동 실시

### 공동주택 보일러실 등 모기 유충 주요 서식처 집중 방제

강진군 보건소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모기 유충구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에도 모기가 활동함에 따라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처를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보일러실, 집수정, 정화조 등이 집중 대상이다. 일정한 장소에만 산란하는 모기 특성을 이용해 모기가 성충으로 부화하기 전 유충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제거

는 방법이다.

특히 겨울철은 모기 생존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면 유충구제 1마리당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 절감뿐만 아니라 하절기 모기 발생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월동 모기방제가 한해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집 주변 물웅덩이 제거



등 자발적 방역에 동참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 지구 수목 수형조절 실시

해남군은 천년고찰 두륜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지구 내 가로수 및 녹지 식재 수목에 대한 수형조절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두륜산 도립공원지구내에 가로수 생육을 방해하거나 도로표지판 및 상가의 간섭 시야를 가리는 수목, 인근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위험한 나무의 수형을 조절한다.

군은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자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생수종은 최대한 존치하고 수목집단의 손상은 최소화해 다층·혼효 구조로 유도하고, 특히 대홍사 진입부에 위치한 느티나무의 강전작업과 공원지구 내의 밀식된 수목의 솎아베기를 통한 통풍조절로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수목 수형조절사업에 발생한 임목 폐기물은 톱밥, 칩, 펄프 등 친환경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통합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생물산업 전문분야 유기적 협력 구축 공동 연구 확대·특색사업 발굴 기대

장흥군이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통합협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장흥군, 한국한약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생물의약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 등 상호협력 체계 구축, 기술자문 및 정보 공유,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협의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협약기관들은 그간 기관들이 각자 연구해왔던 연구 성과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그리고 박사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해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특색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바로 내년 시범사업을 발

실시하는 등 3개 연구기관과 1개 병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됐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